

지역 매 아리

공무원 동절기 사랑의 헌혈 실시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오는 10일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김제시청 종합민원실 앞 주차장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 혈액원의 도움으로 공무원 및 시민이 참여하는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한다.

해마다 동절기와 하절기에 헌혈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김제시는 공무원이 주축이 되어 다수의 병원 관계자, 일반인,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작은 생명 나눔 헌혈 행사를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다.

헌혈 전 유의 사항은 헌혈자의 건강을 위해 전날 과음을 피하고 4시간이상 숙면 및 헌혈 전 식사는 필수이다.

또한 타인 명의 헌혈을 예방하고 안전한 혈액관리를 위해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농촌지원 시범사업 신청 접수

김제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9년도 농촌지원 시범사업을 적시 적소에 내실 있게 추진하고 후계인력 양성을 통한 활기찬 농촌을 만들고 농작업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농장경영 전문 컨설팅을 통한 CEO 양성 사업을 남보다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농업인(법인), 마을을 선정하기 위해 희망 농가의 사업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2019년도에 추진되는 농촌지원 시범사업은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지원 3개소(개소당 5000만원),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 6개소(개소당 200만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1개소(5000만원), 농촌여성 농의소득 활동 지원 2개소(개소당 5000만원), 농촌지원 활용 경쟁력 강화 시범 2개소(개소당 5000만원), 선도농업경영체 우수 모델화 1개소(3000만원), 농산물 디자인 개발사업 2개소(개소당 1000만원) 등 총 7개사업에 4억6200만원이 투입되며, 사업에 따라서는 지원대상이 제한되거나 자부담이 있으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읍면동 산업부서나 농촌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백구면 이장 임명장 수여

김제시 백구면(면장 정관주)은 지난 4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장회의를 갖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주민을 위해 참 봉사를 수행할 41명의 이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선출된 최형식 이장협의회장은 "지역 주민의 머슴이 되어 바로 뛰고 행동하면서 소통과 화합으로 더 행복한 백구면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의회, 무차별예산삭감 논란

의원자제교육강사료, 의원비교견학 및 세미나 등 ↑
농업예산, 노약자·취약계층 복지예산 등 ↓

완주군의회가 2019년 예산을 무차별 삭감한 가운데, 군 의원들의 예산은 증액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비(21.15%)인상과 의원자제교육강사료, 의원비교견학 및 세미나, 의원개발역량비 등 듣지도 보지도 못한 명목의 소규모 예산까지 알뜰 살뜰히 챙기는 행태에 따른 것이다.

반면 고흥의 농업인과 소규모 영농인에게 꼭 필요한 농업예산과 열악한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 복지예산 등은 대폭 삭감하면서 분노의 단초를 제공했다.

2019년도 완주군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완주군의원들의 '의정활동지원비'는 지난해 6억2,063만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증액됐다. 7,942만원이 증액된 것이다.

증액 명목은 비례대표의원 1명 예산(의정비), 의원비교견학 및 세미나 활동여비 1,100만원, 행정사무조사관련 특위활동여비 1,200만원, 각 의원 국

외여비 38만원 등이다.

심지어 초선의원들을 배려한 듯 보이는 의원자제교육강사료 500만원, 의원역량개발 민간위탁교육비 880만원과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지원비 1,000만원 등도 추가됐다.

하지만 제8대 완주군의회 의원들은 위기에 처한 농민들 농업지원 예산과 노약자·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해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올해 완주군 기술보급과 농업예산을 살펴보면 지난해 247억 5,433만원에서 올해 230억 4,868만원으로 줄어들면서, 무려 17억 5,655만원이 삭감됐다.

더욱이 고흥층과 소규모 영농인에 필수적인 소규모비닐하우스 지원사업비, 토양병해충방제사업비, 농작업 환경개선사업비 등도 삭감해, 실제 농민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경로당부식비지원금, 동절기독거노인 경로당운영비 명목으



완주군 의회 전경 사진

로 2억5,130만원이 깎였고, 경로당 부식비, 도시가스 설치비 등 경로당기능 보강사업예산 1억8,600만원이 삭감됐다.

2019년 완주군예산안 삭감조서에 따르면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비 1억 5,000만원,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을 위한 새일센터 인건비 및 활동비 7,500만원 예산 중 1,875만원이 삭감됐다.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예산 2억 5,025만원이 삭감됐고, 한부모가정, 조순가정 청소년 선도를 위한 예산 4,500만원도 깎였다.

특히 주민 설문조사에 따라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시행된 중증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빨래방사업예산 6,600만원은 통째로 날렸다.

게다가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 운영금 4억2,000만원을 깎으면서 '아동급식 부실화 우려' 여론을 도출했다.

어린이민간계층 지원사업비 3,050만원 전액삭감, 일자리 관련 예산 6,400만원도 통째로 날려 문재인정부 일자리정책과 정면 배치된 정책기조도 보였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인재육성재단, 24일까지 서울 공공기숙사 입사생 모집

완주군인재육성재단(이사장 박성일)이 서울에 위치한 공공기숙사(완주학사) 입사생을 모집한다.

7일 인재육성재단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강서구 수명로1길 131)에 위치한 공공기숙사 입사생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격기준은 수도권 소재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중 완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가정형편과 성적을 고려해 총 4명(남2명, 여2명)을 선발한다.

내발산동 공공기숙사는 완주군 등 15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건립한 총 198실 규모의 기숙사로 2인 1실(개인룸 사용) 기숙사실과 체력단련실, 동아리방, 컴퓨터실, 휴게실, 게스트룸 등의 부대시설을 완비하고 있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31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입사생으로 선발되면 3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매월 개인부담금 12만원을 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인재육성재단과 완주군 홈페이지 또는 재단 사무국(063-290-22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의 매력 한가득 느껴요”

완주군, 여행작가·화가 등 20명 초청 팸투어 진행



완주군이 팸투어를 진행해 완주의 매력을 곳곳에 알렸다.

7일 완주군은 최근 1박2일 일정으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행 관련 작가, 화가, 기획자 등 20명을 초청해 완주의 주요 관광거점과 농촌체험마을을 소개하는 팸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여행에서는 완주군 대표관광지인 삼례문화예술촌, 술 관련 체험 및 전시가 가득한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을 비롯해 완주의 인기 생태관광명소인 고산자연휴양림 탐방과 투어바이크 체험 등 완주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를 둘러봤다.

또한, 완주군만의 농촌체험관광으로 구이 안덕힐링마을의 황토방 숙박과 한증막 체험, 소양 오성향 옥마을의 전통 고택을 감상했다.

이에 더해 농가레스토랑 새집수레의 로컬푸드 밥상과 경천농촌사

완주군은 여행관련 작가, 화가, 기획자 등 20명을 초청해 완주의 주요 관광거점과 농촌체험마을을 소개하는 팸투어를 진행했다.

랑학교 마을식당에서 주민들의 손맛을 맛보는 시간을 가졌다.

투어에 참여한 여행작가 김애진(40세)씨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완주군의 특색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예술 같은 완주여행이었다”며 “이번 팸투어에서 체험한 완주의 매력적인 관광지를 주변에 많이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임채군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20~30대 개별관광객 뿐만 아니라 가족이

나 친구들과도 여행하기 좋은 완주군을 알리기 위해 팸투어를 마련했다”며 “감동여행 1번지 완주를 널리 홍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여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털사이트에서 ‘완주군 농촌관광’ 검색 또는 (사)마을통 홈페이지(<http://maulotong.co.kr/>)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완주군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063-290-3330)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는 7일 전북신용보증재단을 비롯, 농협, 전북, 국민, 우리은행과 함께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가졌다.

김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적극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MOU체결

김제시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소상공인 용자금 이차부담 해소에 발벗고 나섰다.

김제시는 7일 전북신용보증재단을 비롯, 농협, 전북, 국민, 우리은행과 함께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제시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고 재단은 출연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10억원 범위내에서 금융지원과 90% 보증을 실시하는 김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 협약 체결이 이뤄졌다.

특례보증 지원제도는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김제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보증을 발급해 줌으로써 운영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8년 12월 조례 개정을 통해 대출한도는 최대 3천만원까지이며 기존 이차보전액 3%에서 4%로, 신용등급을 4등급이하로 확대하였고 지원대상자는 2년이상 중소기업 3개월 이상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서 6개월이상 주소를 둔자로 대폭 완화하여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